



II

2023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

1. 살인

1) 범죄유형

- 2023년에는 총 801건의 살인범죄¹⁴가 발생하였다. 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675건으로 84.3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존속살해 60건(7.5%), 자살교사/방조 55건(6.9%), 아동학대살해¹⁵ 5건(0.6%), 영아살해 5건(0.6%), 촉탁·승낙살인 1건(0.1%)이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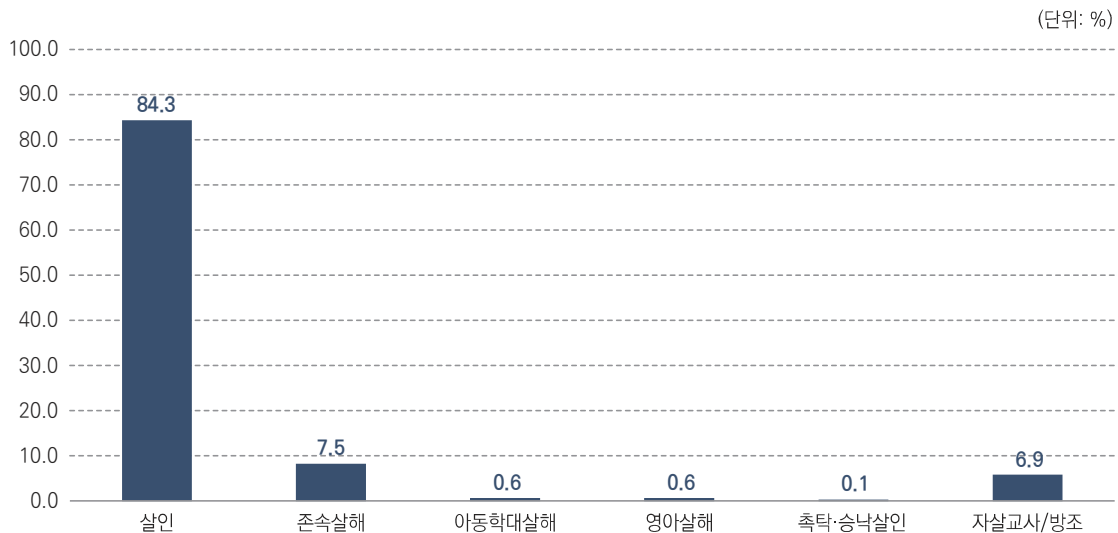


그림 24 주요 살인범죄 유형별 구성비

14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살인(기수), 살인(미수, 예비, 음모, 방조) 범죄가 모두 포함

15 아동학대살해: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(아동학대살해)를 의미

2) 범죄발생시간

-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¹⁶은 밤(20:00~03:59, 38.1%)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는 오후(12:00~17:59, 23.7%), 저녁(18:00~19:59, 12.2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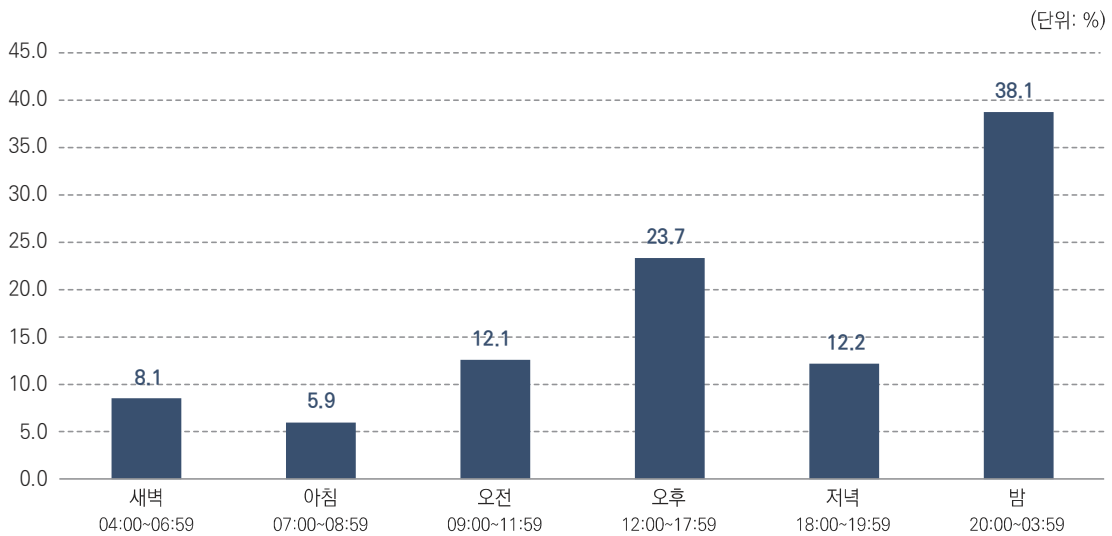


그림 25 살인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살인범죄 피해자의 57.4%는 남자였으며, 42.6%는 여성이었다.
- 살인범죄 피해자의 64.3%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.
- 남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 순이었다. 여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 순이었다. 15세 이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수는 남아동 34건, 여동 28건으로 남아동이 여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, 피해비율은 여동이 8.6%로 남아동에 비하여 0.9%p 높게 나타났다.

16 발생시간별 비율은 발생시간이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. 이하 작성되는 각 범죄별 항목별 표, 그래프에 표시된 비율은 별도로 언급된 경우 외에는 항목별 미상을 제외하고 작성된 통계임



표 24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건(%)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		계
	남성	여성	
6세 이하	21(4.8)	14(4.3)	35(4.6)
7세-12세	8(1.8)	7(2.1)	15(2.0)
13세-15세	5(1.1)	7(2.1)	12(1.6)
16세-20세	8(1.8)	15(4.6)	23(3.0)
21세-30세	45(10.2)	41(12.5)	86(11.2)
31세-40세	68(15.4)	35(10.7)	103(13.4)
41세-50세	81(18.4)	54(16.5)	135(17.6)
51세-60세	89(20.2)	60(18.3)	149(19.4)
61세 이상	116(26.3)	94(28.7)	210(27.3)
계	441(100.0)	327(100.0)	76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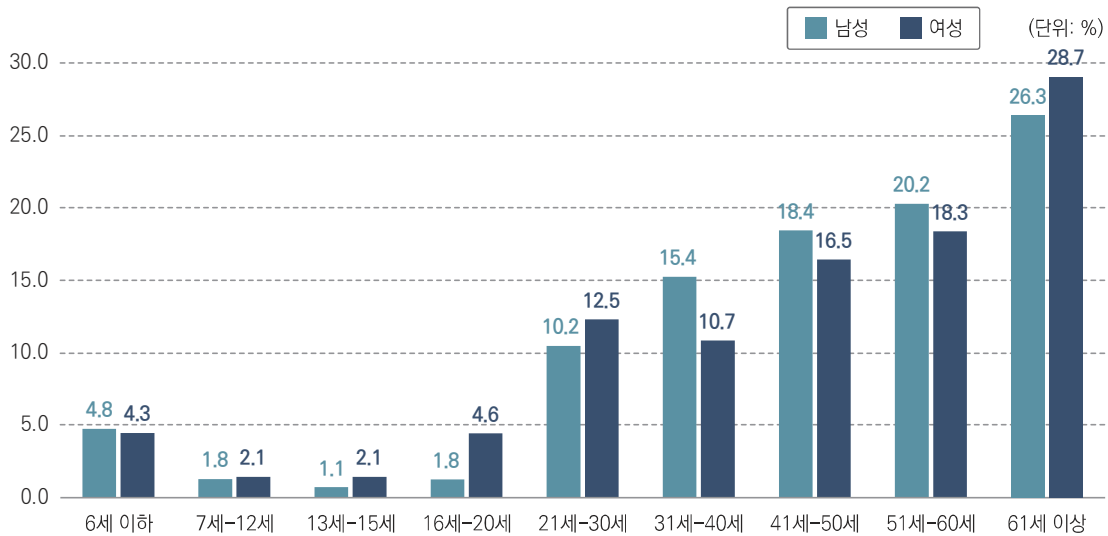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6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4) 신체피해정도

-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61건으로 전체의 33.9%였다.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319건(41.4%),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190건(24.7%)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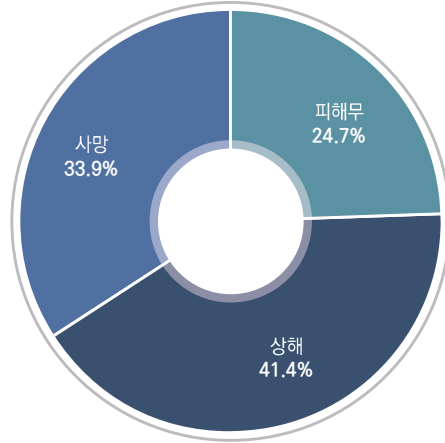


그림 27 살인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전체의 22.1%가 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. 타인 외의 관계에서는,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34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8.0%), 애인(11.0%), 친구/직장동료(9.2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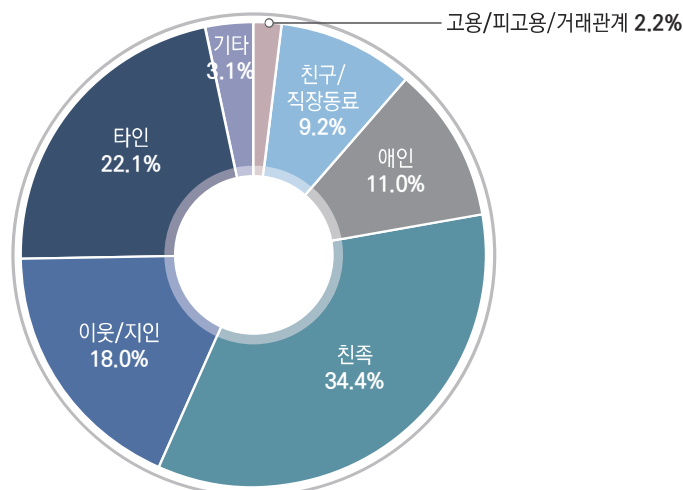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8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

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80.9%가 남성이었으며, 여성은 19.1%로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는 61세 이상 연령층이 24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, 41세~50세, 19세~3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는 19세~30세 연령층이 25.8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41세~50세, 31세~4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의 40세 이하 비율은 50.3%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범죄자(32.1%)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25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1(1.7)	11(7.3)	22(2.8)
19세~30세	101(15.8)	39(25.8)	140(17.7)
31세~40세	94(14.7)	26(17.2)	120(15.2)
41세~50세	131(20.4)	29(19.2)	160(20.2)
51세~60세	148(23.1)	24(15.9)	172(21.7)
61세 이상	156(24.3)	22(14.6)	178(22.5)
계	641(100.0)	151(100.0)	79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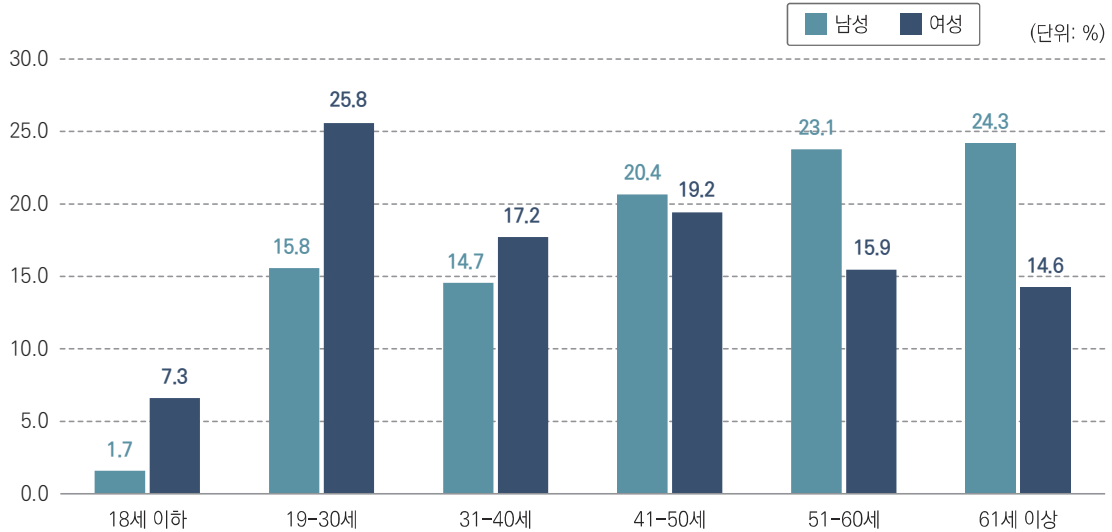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9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7) 범죄자의 전과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1.1%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5.0%이며,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23.8%로 나타났다.

8)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6.1%가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. 34.0%는 주취상태였으며, 9.8%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10.4%로 여성범죄자(6.9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,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35.8%로 여성범죄자(24.8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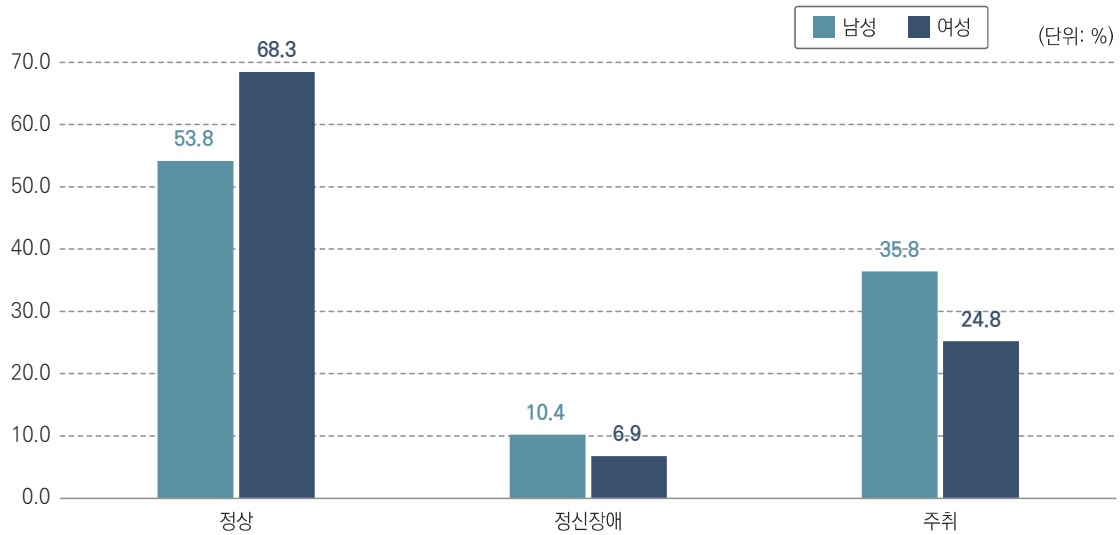


그림 30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2. 강도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3년 총 599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0.1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50.0%가 저녁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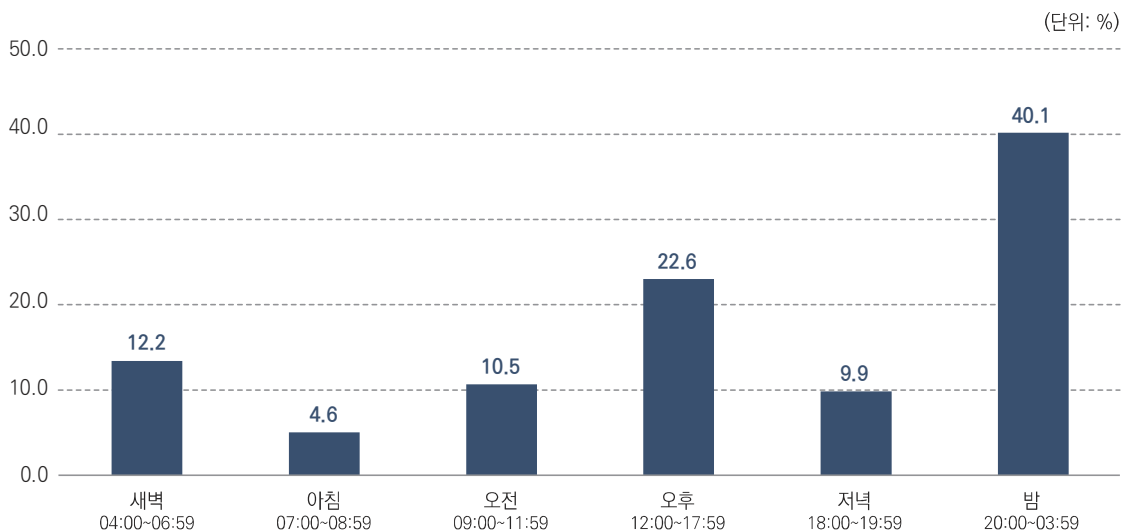


그림 31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